

63.11.28

聖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묵시 2:10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集人 吳 九 台
發行 人 田 榮 澤
主 筆

社説
三・一運動

三・一運動 三十五週年紀念에際하여
빛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이룩한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고 용감히 일어난 「三・一운동」이 어느 새 三十五週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땅에 있는 포포 학생중에 그때와 같은 애국의 열정과 용기를 가진 자가 몇 사람이 되는가 도리어 소련을 조국으로 바라 보고 내 나라 통일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정신이 민약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우리는 첫째 「三・一운동」의 첫소리가 과감스럽게 이 땅에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온

인의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는 열성이 삼일운동 당시 에 비하여 또한 미약한 것이 유감이다. 만일에 기독교인 에게 애국애족의 열이 높았다 면 해방이후에 강한 단결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고 정부에 참전하는 신자도 신자다운 본 색과 빛을 나타내어 그 생활 과 몸을 희생하는 자가 많을 것 이오 따라서 나라가 올바르게 움직이고 깨끗하게 나아갈 것 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많고 따라서 크게 반 성할 바가 있는 것이다.
三・一운동의 뒤를 따라서 무수한 선열들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잃 었든 강토를 찾지 못하고 나라 가 튼튼한 기초위에 서지 못하

었다. 어찌하여 국가와 민생 의 안정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 에는 물론 그 원인으로 사범 을 들고 그 이유로 공산군 침략을 말할 것이지만 만일에 사범과 공산군의 침략이 없었 다면 과연 나라 일과 사회일 이 잘되고 제 권도에 올라서 잘 나갔을가 하는 것은 진실 로 의문거리다.
솔프고 유감스러운 것은 첫째 우리에게 「三・一운동」 당시와 같은 대중단결의 힘과 순국의 정신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시대사조의 관계도 있 겠지만 도대체 개인주의와 의기주의만 높아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 이 비록 독립정신은 있었고

푸로레스탄트敎百年紀念에

次回世界主日学校大會日本에서開催

世界主日学校大會(簡稱 세계 교회 교육대회)는 전세계에 四천이라는 주일학교생도 관계 자가 대 四천만에 한 번씩 대 회를 열고 세계각국 대표자 수천명이 참가하는 것인데, 一九五〇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서 十四회 대회가 열렸고 그 후 十五회 대회는 一九五四年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제정세로 인하여 연기되고 一九六〇년까지는 어느 나라에 서나 개최하게 되었는데, 금년 七월六일부터 독일 「후랑크푸 트」에서 열리는 세계敎會敎育 協議會「WORLD」의 中央常任 員會가 열리고 그때에 다음번 대회의 장소, 시기와 푸로그람 이 정식으로 작성될 것이라는 데, 일본에서 개신교 선교백년 기념을 一九五九년에 맞이하게 된바 그전해인 一九五八년에 동세계대회를 기하여 일본에서 개최하도록 하려고 이미 교단 의장「오자키」씨 명의로 초청 장을 발하였고 다시 이번 七 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협의회 에 참석하는 일본대표 「후지 다쓰」가 동대회를 초청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이번의 상임위원회에는 각국 에서 위원 二十八명이 참가하 고 영국 전 외장(外相) 「마 킨트쉬」를 회장이 되고 미국 워싱턴에 전 총장 와이클 박사 가 의장이 되어 정식으로 차기 대회의 장소와 시기, 주제(主題) 되는 것이다.

韓國復興計劃은順調

美對外活動本部長官스캇센氏談

하롤드 스캇센 美對外活動本部長官은 서울에서 二日間 韓國 政府 유엔 美國政府 三省閣의 會議을 마치고 지난달 十七日 台北으로 向하였는데 出發 前에 記者會見席上에서 韓國戰 後復興計劃은 順調롭게 進行 된다고 요지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나는 李大統領과 白國務總理 와 下外務長官과 부리스大使와

長官은 서울에서 二日間 韓國 政府 유엔 美國政府 三省閣의 會議을 마치고 지난달 十七日 台北으로 向하였는데 出發 前에 記者會見席上에서 韓國戰 後復興計劃은 順調롭게 進行 된다고 요지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伯林會談의 成果

解 說

五年만에 開演된 伯林四國外 博이치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韓國復興團에서 小漁民援助

유엔 韓國復興團(UNKRA)은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小漁民을 援助하기 爲한 小漁民 援助 委員會를 組織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이 會談은 從來의 會談에서 常 例의 由로 되우려 會談의 結果 如何를 注目하고 있다.

社 告

『福音新聞』의 各教會 獻金 額

- 去年 十月 第九回 在 日本 基督教會總會에서 決定된 대로 去年 十月 第九回 在 日本 基督教會總會에서 決定된 대로 去年 十月 第九回 在 日本 基督教會總會에서 決定된 대로
- 一、金 五千七百圓
 - 一、金 五千圓
 - 一、金 四千八百二十圓
 - 一、金 四千四百圓
 - 一、金 二千四百圓
 - 一、金 二千圓
 - 一、金 壹千五百圓
 - 一、金 壹千四百九拾五圓
 - 一、金 壹千三百拾圓
 - 一、金 八百八拾圓
 - 一、金 三百圓
- 一九五四年二月 日

福音新聞社

人 事

○尹河英牧師 去年二月二十五日 在 英國 倫敦 大英聖公會總務 聖書事業三百年紀念式參席次 後 於 二月二十四日 東京 逝世 享年 六十六歲。

○尹河英牧師 去年二月二十五日 在 英國 倫敦 大英聖公會總務 聖書事業三百年紀念式參席次 後 於 二月二十四日 東京 逝世 享年 六十六歲。



望 聲

三百年紀念式典에

韓國聖書公會
總務

任英彬牧師渡英



사진은 임영빈목사

는 이 귀한 유산을 위하여
감사헌금을 갖다바치기도 하는

若松에서 傳道所

二月七日設立禮拜盛大

파	뜻하	동	곧	四日	으로	참	三	성
한	여	성	목	에	가	석	월	서
으로	전	서	정	동	는	하	초	공
	세	공	지	경	길	라	주	회
	계	회	를	에	는	는	에	
		에서	향	잠	지		영	
	신	는	하	시	난	초	국	
	들	영	여	체	二	정	서	
	의	국	되	후	月	을	는	
	성	을	었다	고	二十	말	영	
	력	비			二	고	국	
					十		서	
					日		에	
							는	
							임	
							영	
							원	
							만	
							복	
							사	
							는	
							도	
							나	
							는	
							영	
							국	
							서	
							는	
							영	
							원	
							만	
							복	
							사	
							는	
							도	
							나	
							는	
							영	
							국	
							서	
							는	
							영	
							원	
							만	
							복	
							사	
							는	
							도	
							나	
							는	
							영	
							국	
							서	
							는	
							영	
							원	
							만	
							복	
							사	
							는	
							도	
							나	
							는	
							영	
							국	
							서	
							는	
							영	
							원	
							만	
							복	
							사	
							는	

재일 동포를 하나씩 알기로
인도하는 재일대한국독교회, 전
도소는 해마다 열마다 신설되
어 증가해 가고 있거니와, 이
번에 九州 若松市에 또 傳道
所가 설치되었다.

동 전도소는, 일찍부터 동지방
에 설치코자 전도 중이던 小
倉교회 韓廷洙長老(小倉교회實
任者)의 노력으로 지난 二月

데, 한국에서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헌금 十六만원을 보내게 되었고 임목시는 三월로부터 사개월 동안 한국의 교회와 형편과 성서사업에 대하여 선전강연을 하고 六月말에 귀국하리라고 한다。

禮拜堂新築五計劃

岡崎傳道所查經會
對決心者十一名

로 성경을 법역 출판하여 전 세계 각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바 이번엔 영국 성서 공회가 중심이 되어三月六일부터 집회가 시작되며 앞으로 인턴동안 성서 보급운동의 행사가 계속 되리라고 하는데 세계각국 성서공회와 교회에서

기보한 바와 같이 中部地方의
岡崎傳道所에서 지난 二月 八
九、十三日間 京都敎會 田永

七日에 드디어 傳道所設立에
를 약三十명 宣教師에 성대한
보았다 한다. 특히 동전도소는
동지방 민단 지부장 金應讓氏
의 열렬한 후원으로 그의 자
宅의 一部를 동전도소의 집회
장소로 제공한 것이라 한다.
동전도소 주소는 福岡果若松市
町三丁目

聖書事業三百年紀念大會에

韓國代表를 보내면서

오는 三月六일부터 영국에
서 모이기로 된 성서사업
三百년 기념대회에 우리 한
국대포로 한국성서공회 총무
임영빈목사가 참석하게 되어
이달 二十四일에 이땅을 거
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
은 별항 보도하는 바와 같다
성경을 八百四十 箇語로
번역 출판하는 것으로보던지
그 책이 나가서 온 세계
인루를 널리 감화하는 것으
로 보던지 성서공회의 사업
은 진실로 보통 인간사회에
서 경영하는 어떤사업이 아
니오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인류구제의 푸로그람가운데 하나인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대사업에 관한 모임에 우리 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치문제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데 비길수 없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양과같은 백성이라 제이션민이라 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일이 있거니와 다른것으로는 자랑할것이 없으나 단시일에 교회가 발전되고 따라서 신앙의 열과, 믿는 다음날부터

전도하는 전도의 열과 성경
애독하고 공부하는 열심들은
온 세계의 칭찬을 받는바
큰 자랑거리이다. 가령 교회
에서 주일날마다 어린이들은
말할것도 없고 온 교인이
전부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
서 성경공부를 하는것 같은
것은 다른 나라 교회에서
그예를 볼수 없는 일이다.
처참한 사변중에도 여전히
성경을 출판보급하는 한국
성서공회의 사업과 불행한
화재에 대한 사실은 임목사
가 많은 열을 가지고 보고
선전할것이오 온세계의 동정
을 살 일이라 하겠거니와
특히 정치적으로 영국이 최
근에 우리나라와 자못 좋지
못한 사이가 되고 여러가지
오해가 많은 이때에 반년동
안이 라는 긴 시간을 허비
하여 영국각지에 순회 강연

특히 同傳道所에서는 靑仁의 증가에 비추어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이라 한다.

을 한다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의의가 있는 일이다.

앞으로 한국 사람은 세계평화의 핵심이 되고 온 세계 사람을 정의와 진리로 깨우고 지도하는 중심 세력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니와 이러한 계획도 이번이 이 모임에서 배태(胚胎)될수도 있고 또 한 그러기를 위하하는 공산주의의 침범을 막고 민주진영에서 확고한 통일 평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운동에도 큰 영향이 많을것이니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목사의 사명은 무겁고 큰 것이라 할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임목사위에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을 빌고 따라서 그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이다.

東京教會公司謹啟

豫算額 六千四百四十六萬

제일 한국 기록도 東京圖書館에서 지난 二月十四日 會議中今年度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男女 집사 선거와 今年度 豫算案을 심의하였다 한다 자격 있는 正會員 六十七명 중 약 반수가 참가, 오윤태 목사를 의장으로 회의를 선언하여 금년도 시무 집사를 선거하였는데, 먼저 당회에서 결정한 안으로 투표에 의하여 정회원 男七人 女七人的 집사가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수의 집사를 당회에서 임명하기로 한다는 안을 통과시키고 투표로 붙여갔는데, 男 집사 女 집사 각각 三圓씩 투표한 결과 男女 각 六人의 집사가 선정되었는데 부족수의 男女 一名씩의 집사는 당회에서 선정임명하리라 한다. 당회에서 피선된 집사는 다음과 같다.

특히 同傳道所에서는 표인의
증가에 비추어 예배당을 신축
할 계획이라 한다。

김기철, 오정세, 김기철, 남궁석, 제씨, 김연이, (女習生) 백영희, 백영숙, 이예라, 최명옥, 백영숙

時事評論

韓國兒童을

J. E. F

더러가는것은 무슨 까닭?

지금 세계에서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모를것이 아니니 이는 곧 한국 어린이를 수천명씩을 소련 제국 각처에 강제로 데려다 두는 것

이다. 저들은 이 아이들을 "전도" 재고하"라고 하고 이 사실을 자신사업이라고 세상에 발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과 중공과 구라파의 여러 소련 위성국에서 한국아동의 대량 이송을 신문으로 방송으로 고아구제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맨 먼저 보도되기는 一九五三年 四月二十七일에 만주 봉천에서 발표된 것이데 곧 한국 아동 二만천명 이 중공정부의 초청으로 만주로 왔다는 것이다.



紀行文

그리운 祖國江山 主筆

그리고 一九五三年 五月十五 日 부경 "신중국" 통신의 보도로 어떤 영자 신문에는 만주에 한국아동을 수용한 고아원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 기사에 말하기를 이

아들은 一九五〇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얼마 안되어 곧 더러운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보모는 침략자 미국인으로 인하여 희생된 것이라 널리 선전하였다.

또 一九五三年 五月十一일 연합통신은 "비에나" 통신으로 북한아동 수천명이 소련 위성국인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一九五三年 五月三十일에, 합동통신은 북경발 통공통신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十二세로부터 十六세까지의 한국아동 七천명을 청하여 수용하고 교육시키기로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기사에 말하기를 김일

년 一월 사이에 북한정부의 지령에 의하여 수많은 한국 아동들을 만주와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송시켰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를 검토해 본다면 이 불충한 한국아동들 다 광으로 자기 공산지역으로 이송하는다는 공산당의 영구적 계획을 분명히 볼수있다. 어린 아이들을 제 나라에서 멀리서 이어서 공산주의의 감화원에 끼는 일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공산주의 계획가운데 가장 중대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二차전쟁이 끝난뒤에 히틀러를 수만명씩을 (공산주의로 양성 하시위하야) 알바니아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을 장차 히틀러에서 공산당의 요소와 종자가 되게하려는 의도와 계획이었다.

이 불행한 아동의 장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 이제 이것을 검토해보기로하자. (계속)

民族自覺과 한글教育問題

그 日本에서의 實情에 대하여

姜泰星

그런데 이 日本에는所謂 北韓政權을 支持하는 民族派라는 것이 있고 또 한쪽에는 民族派가 있어 서로 對立하고 있다. 民族派라고 하면 大韓民族을 支持하는 民族派인 것이 아니라 民族派와 韓族派라는 結果로 同志의 結合이 아니고 各派 各색의 思想과 主義를 宣理하는 立場에서 民族的 見地에서 一步를 進取하고 있을 때를 일컫는다. 韓國에 무슨 일에도 努力과 關心이 不足하고 私利私慾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임이다. 이러므로 國家行政이 完全히 實시되지 못하는 이상에서 우리가 教育問題를 云々하게 論議 容易한 일이 아닐을 疑해 理解 容易한 것임이다. 現在 民族系에서 行하고 있는 學校는 韓外로 하고 생 각할때 民族系의 學校란 무엇인지 寒心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一輪 法學學校나 第一 實地 痛感하는 無한 狀態나 무슨 까닭인지 理解하기가 困難한 것임이다. 經費와 設備가 드는 學校라면 또 몰라도 한글敎育所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겠음니다.

設備과 場所와 黑板만 있으면 되는거고 經費는 講義 한 두사람이 있으면 되는 이 런 쉬운 일이 왜 實行지 못하고 있는가. 배를 學生이 없 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지 않느냐. 그것이 實시되지 못하고 있는 原因은 무엇인가.

여기에 무슨 애로가 있는 것인가. 이 程度의 學校라면 할 려고만 마음 먹으면 곧 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責任 있는當局은 三省해 必要가 있는 줄을 압니다. 至今 日本 에 있는 大學과 高·中學校에 는 우리말을 모르는 學生들끼

한글을普及시키는 일은 漢校 敎에 있어서는 大急之事일 것 임이다. 年年 數 많은 商業生이 이 學校의 門을 나오고 또 나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말 을 理解 못하는 그들의 苦悶 이란 憐하지 않음니다. 이들이 日本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 우리 祖國은 이러한 苦悶 世代的 恨을 必要로 하고 있 음니다. 더욱이나 이번 六·二五事變으로 말미암아 破괴된 우리 民族社會를 復興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苦悶은 世代가 要 請된다. 이것은 세상스런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 실 것으로 압니다. 그 青年男 女가 그들의 活動界에서 實 實實實情에 어쨌고 民族의 實 情인 말로 말하지 못하는 입 가진 병어려와 같다면 그 實 任이 누구에게 있을 것임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直接으로나 間接으로 그들을 牽動하고 刺戟해야 되겠다는 것 임이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文化活動을 意味합니다만 現狀으로서서는 우리 文化의 惠 益을 입지자 해도 그 길이 全 無하다는 것임입니다. 이러니 體力이 旺盛한 大部分의 青年 男女가 日本文化에 依存하지 않겠음. 없는 形便이며 가령 우리 文化의 惠益을 입는 機會 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몰라 가지고는 온 는데 소용이 아니겠음니다.

이러므로 文化活動이라 함도 實際的으로 不可能하다 할수 있습니다. 아마 그 關係로 해 서인지 이 日本內에 적지않은 文化人이와 살아도 雜誌運動은 커녕 pamphlet 조차하니 出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大阪서(新世界新報)와 東京서 基督教 關係로 發行되는(福音新聞)이 있을 뿐이니 이땅의 우리 青年들을 教育한다는 程度 까지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임입니다.

현신, 찬송, 一, 설교
 , 현금 : (세계기도회의 현
 금은 오히려와와 한국의아동
 에게 보내기로 되었습니다.)
 현신,

光明面斗暗黑面

있는데 웬 일인지 모르겠다. 예전의 분위기가 매우 엄숙해졌다. 이제 당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격으로 몇가지의 것을 말하면 사회하는이나 목사가 성경을 낭독할때나 설교할때만 당에 올라가고 다른 시간에 올라가앉아 있지아니했으면 한다. 임숙할것같이 생각되고 다음에는 성가대에서나 찬송할때는 피아노보다 풍채를 사용하는것이 좋았하이다.

(原子力量 平和産業の三)

그 범위를擴大시키는 것이
曰 深化시킨다는 것이다.
容易하게 想像할 수 있는 것
大體 速度와 규모로써 모든
生産物이 출현하는 것은 일
간에 對小하오면 모든 市場
제우고 잠시간에 모든 商品
山積하여 流通과 生産은 停止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 경제 反動을

十五號전에	끝나고	영문	전부
월	十二時	정각에	끝나고

예수가 골라니 음에 세로
천원 십사월을 소개하는데
뜻 깊은이들의 열광이 보이는
것이 반가웠다. 그리고 열애

東京教會禮拜參席記

나는	오라간만에 날이 써
바닷에서	불기운이 앞연한 지
二十一日주일	아침에 東京
敎會 예배에 참석하였다.	김석
신 장로 사회로 예배는 진행	한것은 하남의 마음을 움직
되는데 우선 전파 달리 생각	이지 못하는것이오 그 까닭은
되는것은 사회자가 예배 순서	첫째, 사람이 의롭지 못한 까
번번이 회중에게 광고하지	않이오 둘째 기도가 부족한 것
없고 말없이 순서를 진행하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다.	설교는 약二十五분에 十二時

많은 것이
 아쉬웠다. 전에는
 산송뒤에
 반드시 「아멘」이 있



백령(白翎) 일사의 성명(白翎)은 二面에
편입(編入)되

교회와 오복사

生産力の發展이 惹起한 弊
 害은 그 이후에 곧 社會의
 過當生産과 过剩曰 큰 混亂에
 比하면 實로 微々할 따름이
 아니었음.

우리는 여기서曰 社會에서
 아 함다. 西歐의 政治家나 實
 業家가 우리와 하듯이 戰後에
 있어서의 主權과 共產陣營의
 生産力發展의 速度가 美國과

요 哲學者도 아니다。그러나 물건이 많은것도 좋고 人物 리는 어떠한 政權家、어떠한 이 나서는것도 必要하다。그러 學者보다도 예수를 崇敬한다 나 물건이 많아도 예수가 없 금 여기에 헛들려나 아인스 으면 아니되고 人物이 나서는 인이나 썩스피어나 임마누엘 예수가 없으면 滿足치 아니하

사진을 보라

西歐陣營의 그것보다 更格나
曰 크다는것을。
平和야말로 自由陣營이 願하
는 것이며 그 속에서 가장
生命의 價値를 얻어나갈 수 있
는것이러니 原子力의 平和의利

트가 우리들이 알아 있는 것이다. 과거歷史를 통하고 연구하는 데까지의敬意를表할것이다 더間斷없는靈感과信念과 그러나 만일 여기에 예수께서勇氣와慰安을 받을것과 같이 권오신다면 우리는 그자리에 오늘날 이時代보다도 예수가 디여 그를禮拜할수 밖에 曰要求되는 때가 없었다고 다스 예수께는 한곡의 그릴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예수께 손수 그린것이 없으나數로 도라가자. 그를 믿고 그와는兩家들의 마음에 잇을수 生命的關係를 맺어보자.

是感動을 주었고 그는 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의樂曲도 손수 지은것이 수의思想을 우리의生活에 이나 많은作曲家들에게靈驗해야 하겠다。예수를 믿는다 을 주어 世界的名曲을 쓰도록 말은 예수께서 가지셨던 하였고 그는 한번도 손수思想으로 우리의思想과主張微錢을 들고 무엇을研究해울 삼다는 말이다。다시 말 시기 아니하였으나 많은科하자면 예수主義者가 된다는 것을로 하여금信念과勇氣말이다. 칸트의哲學說을 따르

얻게하였다。

먼 칸트(主義者)이요 맑스의經

濟學說을 따르면 막쓰主義者
요 두이의 敎育學說을 따르
두이主義者이다 이와같이 예
의 思想을 그대로 갖는것을
예수主義라 함것이다. 基督敎
簡單히 말하여서 예수主義이
예수主義는 누구나 다 할
물수 있으리만치 平易하면서
眞理의 가장 오묘한것을含
하였고 가장 軟弱한것 같으
心靈을 움직이고 歷史를 뒤
어 엮는 偉力이 있다. 偉
한 運動은 언제나 偉대한
想에서 出發한다. 이스라엘民
을 何로 들어 생각하여 보
그들에게 運命지워진 社會的
歷史의 情勢로 보아서는 언
나 非觀할수밖에 없는 逆境

이 있었지만 그들이 運命까지
인 지워 버리지 못한 그들의 民
衆의 傳統思想 즉 이스라엘 백
은 하나 님께서 特別히 選擇
하신 民族으로서 人類에게 가
는 崇高한 宗教를 提供할 義務
을 띠고 있다 는 國民意識이 아
니로 인해서 그들을 움직이여
逆境中에서라도 이러한 世界
를 바라고 보게 하였다. 그들의
집값은 運動은 實로 이 信
大에서 出發하였다. 實것이다.
思想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族 크던지 적던지 그것이 別關
자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실
은 重大한 關係가 있는 것이
제 우리가 먼저 어떠한 생각을
에 가졌느냐는 것이 큰 問題이

用이야 말로 自由陣營이 最先에 서서 그 選手가 되어야 할 理由가 있지 않다.

個人的의 自由와 尊嚴性이 이 民主主義의 支柱라면 우리에게 는 卒先 原子力을 萬民의 利益과 幸福이 될수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努力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原子力の 平和的利用이야 말로 人類가 終局的으로 選擇해야 할 두가지 集中의 하나를 指示하는 것이 될것이다. (끝)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 보려다가 실수를 한것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다가 우연히 잘못되었나 을 것이다. (계속)



광명의 새세계
히미하게 들려오는 새벽 종
소리는 점점 똑똑히 힘있게
그리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다 태호는 얼마나 언제까
지나 업드려 있었는지 모른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맞은 편
담을 보았으나 그대로 캄캄하
였다.

태호의 머리에는 문득 사변
당시의 자기의 행색과 자기의
태도가 떠나온다.
「놈들, 돈있는 놈들, 세력 있
는 놈들, 꼴 보기 싫더니 잘
봤다. 이제는 네나나나 마한
가지로다. 이제 다같이 살 때
가 왔구나」
이런 어림 없는 생각을 하
면서 그리면서도 형편을 보누
라고 가장 제가 노동자인척
차리고 비슬비슬 다니던 자기
꽃이 눈앞에 천천히 지나간
다. 다음에는 검은 두검이 같
은 탕크 때가 지나간다. 멀리
서 보던 것이 지나가고 이북
에서 볼 때에 지긋지긋하던
소련식 군복을 입은 의기양양
한 장교들이 눈앞에 지나간다
다음에는 미국식신사로 막속
하게 차린민용구의 풀이 지나
가고 스트리진 가슴머리에 주
홍빛으로 물드리고 회칠한 흰
얼굴에 붉은 핏빛 칠한 입설
로 인조 양녀가 된 송혜련도
지나간다.

「아이구 머리아!」
태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사변이 터진뒤에
총무로 어떤 길에서 갈팔팔팡
하던 자기의 풀이 다시 보인다.
다.
「아직도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머리에 지나간
다.
「세상은 한번 변하긴 변해야
될거야」
이런 생각, 전에도 가끔 하
는 생각이 어디갔다 왔는지
또 학 지나간다.
약간 상체를 일으키고 앉았

던 태호는 다시 방바닥에 탁
업드렸다 머리가 부시는듯 아
픈 것이었다. 그리자 서울 탈환
당시에 서울 시구문 밖에 피
투성이 된 송장, 여자 남자
팔것 없이 옷이 벗어져 몸을
들여안채로 여기저기 누워있는
송장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미친 개노갈아 노르르 사람을
노려보고 다니던 피뢰군의 무
서운 모습, 또 너털우슴을 웃
고 똑같이 판에 박은 거짓말
을 하던 인민군 장교들의 모
습이 보인다.
「맹 맹 맹!」
잠시 공경던 새벽 종소리는
다시 울려온다. 다시 몸을 이
르키면서 살창 새로 좁은 하
늘을 내다본 태호는 놀란듯,
전기가 올라 감전이 된듯 몸
이 떨리면서 눈이 번쩍 띄우
는 같았다.
「아! 저거 보아!」
태호는 졸고도 먼 하늘에
반자기는 새벽별을 한개를 본
것이다.
그리고 문득 가슴이 시원하고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빛이 다 빛이다 저기 빛이
있다 나는 빛을 발견하였다
한목사가 말하던 빛을 발견하
였다 빛을!」
태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빛이 없이는 혁명도 새사회도
없다, 거짓 말이다 그렇다 빛
이 없이는 돈도 기계도 모든
풍부한 물자도 다 소용없다.
빛없는 세계는 지옥이다 나는
어대껏 지옥의 길을 해매고
있었다, 태호는 한거름 한
거름 광명의 세계로 달려간다
「맹 맹 맹!」새벽종소리는
점점 요란하게 들리고 캄캄하
고 히미하던 하늘은 점점 밝
아지며 붉은데한 빛까지 보이
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둡고 무
겁던 태호의 가슴은 차차 환
하고 가든가든 해진다.
아무도 원망할 것도 없고 미
울 것도 없고 도리어 자기 몸
이 송하고 보기 싫어서 몸

들다가 없는 것 같았다.
「빛은 하나이다 하느님이다」
태호는 하늘의 반자기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러케 중얼거리다
가—우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아까 하던
기도를 줄줄 외어보았다.

京 城 料 理

美 登 利 園

東京都千代田區有樂町2ノ13
有樂町驛中央出口前
電話 丸ノ内 (23) 5327番

高級カバン
袋物・バンド
其の他

中村商店

京都市中京区新京極蛸薬師角
電話本局②五八八一番(呼出)